

## 프란치스칸의 자비의 얼굴

Carolyn D. Townes, OFS, National JPIC Animator

자비의 특별 희년 선포 칙서인 **자비의 얼굴**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버지의 자비는 나자렛 예수님 안에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나자렛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과 행동, 당신의 온 인격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십니다.**’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교황은 ‘**우리는 언제나 자비의 신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신비는 기쁨과 고요와 평화의 샘입니다. 여기에 우리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십니다.

자비. 이 말은 연민과 용서와 이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비는 정의를 요구한다고 하십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는 정의를 요구합니다. 하느님은 무한한 지혜로 우리 각자가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을 살도록 부르시어 기쁨 부어 주셨습니다. 기쁨 부음과 부르심에는 자비, 사랑, 평화와 정의가 되고 그것들을 실천할 책임이 따릅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친목과 기도를 즐기려고 가입하는 또 하나의 단체가 아닙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서로에게 자비의 얼굴이 되라는 살아있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이 사회의 경계인들에게 자비의 얼굴이 되라는 살아있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든지 하느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님과 구원자의 얼굴이 되라는 살아있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재속 프란치스칸들은 자비의 얼굴을 알아보기를 원치 않는 장터, 직장 그리고 악의에 찬 거리에서 자비의 얼굴이 되라고 불리웠습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며 단위 형제회와 지구 형제회에서 JPIC 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프란치스칸의 JPIC 위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자비가 되어 자비를 실천하는 것, 공감과 연민이 되어 이를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회칙의 기초가 된 복음, 이 복음이 되고 복음을 실천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와 평화의 핵심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되어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이고, 이것이 평화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조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음송하듯, 하느님의 자비는 영원하시므로 프란치스칸의 자비의 얼굴도 영원합니다. 기쁘게 살고 자비의 얼굴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은 분노와 폭력, 복수를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폭력과 분노는 더 큰 폭력과 분노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프란치스칸인 우리는 보통의 정도가 아닌 더 높은 기준으로 불림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도록 불리지 않았습니. 우리는 하느님 나라 안에서 뛰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나약함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인간으로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삶은 인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이 없다면 우리는 완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인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매 순간 매 순간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12명의 그런 인간들과 함께 계셔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 구세주가 계시니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인 우리는 복음의 뛰는 심장인 하느님의 자비를 알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비가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이의 마음과 정신에 가 닿아야 합니다.(**자비의 얼굴 12**) 여러분을 스쳐가는 사람들, 특히 우리로 하여금 프란치스칸 답지않은 반응을 하도록 야기하는 사람들, 또 운전 중에 갑자기 끼어들면서 손가락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프란치스칸의 자비의 얼굴이 되고 실천하십니까? 그들에게 자비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자비를 보여 주겠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에게 자비를 증거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황량한 사막에 격리된 것 같이 아무런 생명도 없는 불모의 삶이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자비를 증거 하고, 프란치스칸의 자비의 얼굴이 되도록 불림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여정에 평화와 자비를 주시기를 바랍니다.